

광주일보사·유웨이중앙교육·울산과기대 공동 주최

2009 대입 설명회



입시 전문가인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오른쪽) 평가이사가 18일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09 입시전략 설명회에서 수시2와 수능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비중 커진 수시 2·수능 주목하라

수리영역 상위권 학생 변별력 '키워드' 언어·외국어, EBS 교재로 감 익혀라

이만기씨가 말하는 2009 대입 핫이슈

- 수능 점수세, 수능 영향력은 얼마나 커질까?
- 수시모집, 준비를 해야 하나?
- 수능 우선선발 전형에 대비해야 할까?
- 2009 학생부 비중, 확대 될까? 축소 될까?
- 논술, 준비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 의화전문대학원·로스쿨이 미치는 영향은?

광주일보사는 지난 19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입시 전문가인 유웨이중앙교육, 국내 최초의 법인과 국립대학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와 공동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했다. 수능(11월 13일)이 석달이 채 남지 않았고 최근 각 대학의 수시2학기 전형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인지 200여명의 학부모들이 자리를 메우고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인터넷 강의 등으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유웨이중앙교육 이만기 평가이사의 입시전략 설명에는 학부모들이 노트 필기까지 하며 질문을 쏟아내는 등 열의를 보였다.

이 이사는 수시모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처음으로 수시2의 모집인원이 정시를 주월했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수시2의 비중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우수 학생들을 보다 빨리 선점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도 '수시'에 쏠려있다.

수시2 원서 접수는 대개 9월 모의고사를 치른 뒤 하게되는데, 9월 모의고사 성적을 참조는 하되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 전까지 치러왔던 여러 모의고사와 비교한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 9월 모의고사를 맞췄다고 제쳐놓고 수시2에 '올인'하는 것은 피하라는 얘기도.

수시2에서는 학생부 성적이 크게 좌우한다.

그러나 중상위권 대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논술에 대비하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중상위권 대부분 대학이 논술 반영비율을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사는 또 "2009학년도 수능은 지난해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수리영역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가르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수리영역의 주관식 비중이 높은 것도 수리가 변별력의 주요 사항이라는 것을 방증한다. 그는 "수능이 실시된 지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수리나 과학의 경우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 힘들다"며 기출문제를 변형한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팬클럽 대학'들은 수리영역에 가산점을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포기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에 지원한 학생이 수리가기를 선택했을 경우 가산점을 주고 있다.

언어와 외국어영역은 EBS 교재의 영향력을 것으로 내다봤다. 모의고사에서 언어의 경우 EBS에만 수록된 작품이 나오거나 하면, 외국어영역에서는 일일이 번역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정도로 EBS 교재 문제와 비슷한 유형이 출제될 것을 예로 들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몇 가지 제도들이 지난해와 다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접수제가 부활했기 때문에 수능의 비율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재수생의 비율이 지난해보다 6%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의 재수생 비율은 반대로 늘었다. 이는 최상위권 재수생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수능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설명에 조금 안도할 수 있었다"며 "논술 부담이 적은 대학을 찾아 수시2 전형에 원서를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보사는 대입 일정에 맞춰 대학 교육기관과 함께하는 2009학년도 입시설명회를 몇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과기원-美 플로리다대 교류 협정

동신대,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 선정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소장 이종민)가 미국 샌트럴플로리다대학 전자광학 및 레이저 연구센터(CREOL: The Center for Research in Electro-Optics and Laser)와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국내 광 전문 연구소가 세계적인 광과학기술 분야 연구 기관과 손을 잡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광주과기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인력교류 등을 지속해왔던 양 기관은 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해 이번 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교환, 연구원, 학생 등 연구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과기원 고등광기술연구소는 2001년 설립 때부터 세계 3대 광연구기관 중 하나인 '크레올'을 모델로 삼았다.

동신대 전기공학과 '산업체 주문형 조명(광원) 및 전력 설비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단'(단장 이경섭 교수)이 한국에너지지원기술기획위원회의 에너지지원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단은 2009년 7월까지 2년 동안 13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사업단은 우수 학생 유치와 함께, 다양한 장학제도와 산업체·전문가 특강, 자격증·조명 및 전력설비 특성화·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학습단 운영, 국내외 현장교육 강화, 전담 지도 교수제, 인성교육 프로그램, 벤처기업 창업 교육, 전문경영 교육, 신기술 교육 훈련 프로그램 운영,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관련 분야 작품 및 예비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할아버지 생기고... 봉사 학점 따고... 동신대 간호학과 - 나주지역 노인 수양 조손 맺고 '1대1 건강 관리'

동신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지역 노인들에게 1대1 건강관리를 펼친다.

동신대에 따르면 간호학과 3학년 50명은 나주지역 노인 50명과 수양 조손을 맺고 2009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 측은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에게 1학점을 인정할 방침이다.

학생들은 노인 대상 1회성 봉사 활동 프로그램과 달리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 증세를 갖고 있는 수양 노인들과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하게 된다.

지난 19일 나주시 동강면 월성리 월성보건의료소에서 열린 학생들과 노인들의 첫 만남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연 뒤, 세족식 행사를 갖기도 했다.

동신대 정영태 간호학과장은 "지금까지 많은 봉사활동과 실습들이 단기간에 걸쳐 이뤄졌지만 실습도, 봉사도 제대로 안되는 현실이 안타까워 마련했다"며 "미래의 간호사로서 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도국제교육원 영어캠프 '인기'

美 대학 커리큘럼에 원어민 교사 10명 상주 내달부터 전남 초·중학생 초청 무료 캠프도



남도국제교육원의 여름방학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원어민의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남도국제교육원>

전남도립 남도대학이 전남도, KT, KTES와 함께 50여 여원을 들여 남도대학 장흥캠퍼스에 설립한 남도국제교육원(NIEC: Namdo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의 여름방학 영어캠프가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도국제교육원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여름방학 영어 집중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1천여명에 달한다. 2박3일 프로그램은 물론 1~4주 과정의 장기캠프에도 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다.

남도국제교육원의 영어캠프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대학, 워싱턴주 웨스턴 워싱턴대학, 캘리포니아주 얼바인대학 등과 커리큘럼이 같은 것이 장점이다. 원어민 교사는 10명이 상주하고 있다.

특히 4주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서울대 학생 3명이 투입돼 수학과 과학 과목을 보충 지도해 학습경쟁력을 기르고 있다. 교육원 인근의 펜백나무숲을 활용한 야외학습과 인근 해수욕장 및 보성 차밭 등 현장 학습도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남도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두 달 동안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의 하나로 각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전남지역 초·중학생을 초청, 무료 영어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원어민과 외국을 옮겨놓은 듯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영어에 대한 벽을 허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동산 판매계의 자부심! **대중법률경매(주)** T.062)227-6666 011-646-2226

지역: 광주,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요 부동산: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토지

서비스: 무료 상담, 현장 방문,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진행

**대승공인중개사** 062)954-7700, 010-9468-7959

**수원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 전문**

토지매매, 주택매매, 상업용지, 임대차, 부동산 투자

수원지구 333-1(명지변경가) 60마터 대포면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수원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190만

광안구 수완동 35㎡ 대포면 자연녹지 1.762㎡ 4.231㎡ 70만(분할가능)

광안구 신안동 대지 374㎡ 30만

광안구 신촌동 광안대교변 지하철거 앞 상업용지 대지 286㎡ 대가 2억 9,000만

광안구 지정동 전(묘지) 643㎡ 28,000원

노들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원지구 중심상권 - 지하1층, 지상8층 연면적 5,000㎡ - 1층: 약국, 전시장, 인형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4~10층: 임대(중·고등학교)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파바게트 임점확정, 2층 파파존스 피자 임점확정, 6~8층: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수원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합동공인중개사** 011-646-3393, 010-8675-6200

수원지구 4000세대 독점상권 **아파트 상가 매매 및 임대**

입점시기: 2009년 3월 ~ 12월 (지금 준비하십시오)

권장업종: 마트/제과점/미용실/세탁소/문구점/피자/김밥나라/청과/정육/차킨오피스/떡집/건강원/안경점/편의점/학원/병원/약국

평수: 60평/40평/25평/13평/9평

매매가: 7000만원 ~ 8억2000만원

임대가: 3000만원 월세 80만원, 2억원 월세 300만원, 보증금과 월세 전화 조정 가능함.

대금납부 방법: 계약금 지불 후 상가 임점시 잔금납부, 용자가능함, 방문상담 환영합니다